

2019년 1월 10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4일 연속 상승

### 연준, “느린 인플레이가 추가 금리인상을 지연 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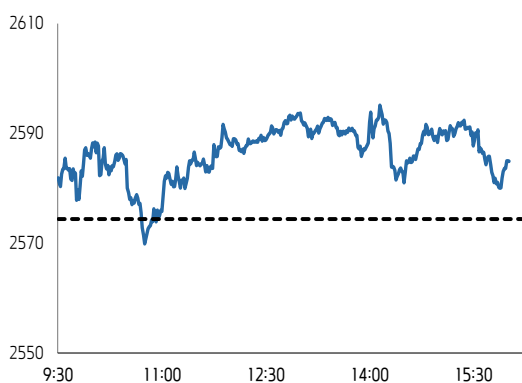
#### 미 증시 상승 요인

미 증시는 중국과의 무역협상 진전과 국제유가 급등에 힘입어 상승. 한편, 연준이 FOMC 의사록 공개를 통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언급한 점도 긍정적인 영향. 다만, 피치가 ‘셋다운’이 장기화되면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발표한 점은 상승 제한(다우 +0.39%, 나스닥 +0.87%, S&P500 +0.41%, 러셀 2000 +0.86%)

미 증시는 ①긍정적인 미-중 무역협상 ②국제유가급등 ③FOMC 의사록과 연준위원들 발언 등에 힘입어 상승. 먼저 미-중 무역협상인데 미국 협상 대표들은 성명서를 통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농작물, 에너지 및 제조물품 등을 ‘상당량’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발표. 또한 ‘지적 재산권’ 관련 일부 진전이 있었다는 내용도 있는데 강제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 중국에서 필요한 구조적 변화를 보일 것 이라고 주장. 국제유가도 낙관적인 미-중 무역협상과 사우디의 원유 수출 물량 감소 영향으로 5% 넘게 급등. 사우디는 1 월 원유 수출을 하루 720 만 배럴, 2 월에는 710 만 배럴을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 더불어 1 월 산유량도 1,020 만 배럴로 전망.

한편, 연준위원들은 금리인상 시기 지연 및 경기에 대한 자신감 표명.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연준은 통화정책에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라고 주장.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도 “다음 금리인상 까지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라고 언급. 한편, 로젠그랜 보스턴 연은 총재는 “고용 등 경제지표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시장이 지나치게 비관적인 경기전망을 하고 있다” 라고 주장. 대체로 연준위원들은 경기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나 금리인상 시기는 지연되어야 한다고 주장. 이런 가운데 연준은 지난 12 월 FOMC 의사록 공개를 통해 “느린 인플레이가 추가 금리인상에 인내심을 가지게 했다” 라고 발표. 한편 경제와 관련 “가계 지출은 강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4 분기 경제 활동도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라고 주장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064.71	+1.95	홍콩항셱	26,462.32	+2.27
KOSDAQ	679.74	+1.68	영국	6,906.63	+0.66
DOW	23,879.12	+0.39	독일	10,893.32	+0.83
NASDAQ	6,957.08	+0.87	프랑스	4,813.58	+0.84
S&P 500	2,584.96	+0.41	스페인	8,823.60	-0.27
상하이종합	2,544.35	+0.71	그리스	638.22	+1.93
일본	20,427.06	+1.10	이탈리아	19,179.16	+0.9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애플과 관련주 상승

애플(+1.70%)은 전일 팀쿡 CEO의 견고한 생태계 관련 발언과 모건스탠리가 수익 둔화 문제는 일시적이라고 발표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더불어 긍정적인 미-중 무역협상도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큐로브(+1.82%), 스카이웍(+3.83%), 브로드컴(+4.32%), 사이러스로직(+4.56%), 아나로그디바이스(+2.53%) 등 부품주도 동반 상승 했다. 마이크론(+5.04%)은 번스타인이 투자의견을 상향 조정 했는데, 메모리 가격 하락으로 주가가 부진할 수 있으나, 리스크/보상 비율(0.85)이 매력적이라는 점이 조정 요인이었다. 인텔(+0.57%), TI(+1.97%), AMAT(+4.22%), 램리서치(+5.16%)도 동반 상승 했다.

캐터필라(+0.39%), 보잉(+0.97%), 3M(+0.32%) 등 산업재는 낙관적인 미-중 무역협상에 힘입어 상승 했다. 셰브론(+1.34%), 코노코필립스(+3.31%) 등은 국제유가 급등에 힘입어 상승 했다. BOA(+0.98%), 씨티그룹(+1.66%) 등 금융주는 국채금리 상승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2.48%	대형 가치주 ETF	+0.44%
에너지섹터 ETF	+2.51%	중형 가치주 ETF	+0.70%
소매업체 ETF	+0.84%	소형 가치주 ETF	+0.77%
금융섹터 ETF	+0.49%	배당주 ETF	+0.16%
기술섹터 ETF	+1.29%	변동성 ETF	-2.19%
소셜 미디어업체 ETF	+2.26%	대형 성장주 ETF	+0.78%
인터넷업체 ETF	+0.42%	중형 성장주 ETF	+0.94%
리츠업체 ETF	-0.38%	소형 성장주 ETF	+0.89%
주택건설업체 ETF	+2.10%	신흥국 고배당 ETF	+1.26%
바이오섹터 ETF	+0.70%	신흥국 저변동성 ETF	+0.70%
헬스케어 ETF	+0.61%	하이일드 ETF	+0.14%
곡물 ETF	+0.12%	물가연동채 ETF	+0.12%
반도체 ETF	+2.53%	Long/short ETF	-0.5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59.67	+1.50%	+6.20%	-0.87%
소재	325.92	+0.08%	+2.47%	+0.49%
산업재	563.87	+0.63%	+3.54%	-1.26%
경기소비재	830.53	+0.46%	+5.30%	+1.46%
필수소비재	525.46	-0.97%	+1.11%	-5.96%
헬스케어	1,011.51	+0.32%	+2.42%	-3.61%
금융	405.55	+0.52%	+1.69%	-1.00%
IT	1,111.92	+1.24%	+2.10%	-2.95%
커뮤니케이션	146.98	-0.36%	+4.60%	+1.52%
유틸리티	267.67	-0.65%	+1.44%	-6.19%
부동산	194.93	-0.43%	+3.70%	-6.5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제한적인 상승 예상

MSCI 한국지수 ETF 는 2.54% MSCI 신흥지수 ETF 는 1.80%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2,388 계약)에 힘입어 1.20pt 상승한 267.2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17.1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6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증시는 낙관적인 미-중 무역협상 결과에 힘입어 상승 했다. 더불어 연준위원들과 FOMC 의사록을 통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언급한 점도 위험자산 선호심리를 높이는 요인이었다. 특히 연준은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이 높지 않아 추가적인 금리인상은 신중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한 점도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장중에는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 및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된다. 이 지표 결과에 따라 중국 경기 둔화 이슈가 재 부각 될 수 있다. 그러나 전일 중국 국무원이 법인세 감세 혜택을 받는 기업들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으며, 올해 안에 소비진작 정책 발표 등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경기 둔화 우려감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또한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다만, 미-중 무역협상에서 여전히 '지적재산권' 관련 이슈는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오늘 파월 연준의장의 연설과 미 상무부 산업안전국의 신기술 제품 수출 제한 관련 보고서 제출등을 앞두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더불어 미국의 섯다운이 장기화가 불가피 한 점도 부정적인 요인이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유럽 경제지표 개선

11 월 독일의 무역수지는 190 억 유로 흑자로 예상보다 양호한 결과였다. 최근 독일 산업생산이 둔화되는 등 경기 둔화 우려를 높였으나 이를 완화시킨 결과였다.

11 월 유로존 실업률은 7.9%로 전월(8.0%)이나 예상치(8.1%) 보다는 양호한 결과였다. 이 또한 유로존 경기 둔화 우려감을 완화시킨 결과였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제유가 급등

국제유가는 낙관적인 미-중 무역협상과 사우디의 원유 수출 물량 감소 영향으로 5% 넘게 급등했다.. 사우디는 1 월 원유 수출을 하루 720 만 배럴, 2 월에는 710 만 배럴을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더불어 1 월 산유량도 1,020 만 배럴로 전망했는데 OPEC 정례회담에서 합의보다 감소폭이 컸다. 결국 국제유가는 수요 증가 기대 및 공급 감소 전망에 힘입어 급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달러화는 낙관적인 미-중 무역협상 결과 및 유로화 강세 여파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독일 무역수지 개선 및 유로존 실업률 개선 등 주요 경제지표 결과 발표 이후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브렉시트 의회 토론이 지속되는 등 불확실성이 불거졌으나,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미-중 무역협상 결과에 힘입어 상승 하기도 했으나 연준이 FOMC 의사록을 통해 “느린 인플레이가 추가 금리인상에 인내심을 가지게 했다” 라고 발표하자 하락 전환 했다. 한편, 연준위원들중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와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금리인상에 대한 인내심’을 강조 했다. 더불어 로젠그랜 보스턴 연은 총재는 “경제지표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라고 주장했다. 대체로 연준위원들은 경기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나 금리인상 시기는 지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0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율은 12 개월 평균과 같은 2.51 배를 기록해 영향력은 제한 되었다.

금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 및 무역협상에 따른 수요 증가 기대감이 높아져 상승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49% 하락 했으나, 철근은 0.11%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2.36	+5.18	+12.51	Dollar Index	95.129	-0.81	-1.75
브렌트유	61.44	+4.63	+11.89	EUR/USD	1.1548	+0.94	+1.80
금	1,292.00	+0.47	+0.62	USD/JPY	108.02	-0.67	-0.79
은	15.735	+0.14	+0.55	GBP/USD	1.2798	+0.64	+1.52
알루미늄	1,852.50	-0.64	+3.09	USD/CHF	0.9737	-0.77	-1.66
전기동	5,958.00	+0.88	+1.99	AUD/USD	0.7176	+0.50	+2.73
아연	2,492.00	+0.28	+3.40	USD/CAD	1.3218	-0.42	-2.66
옥수수	382.00	+0.53	+1.66	USD/BRL	3.6809	-0.88	-2.80
밀	520.00	+0.43	+2.61	USD/CNH	6.8101	-0.65	-0.99
대두	924.00	+0.60	+1.87	USD/KRW	1122.10	-0.18	+0.28
커피	105.30	+0.24	+5.83	USD/KRW NDF1M	1117.15	-0.44	-0.28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708	-1.97	+8.79	스페인	1.490	-2.10	+9.10
한국	1.978	-1.40	+2.80	포르투갈	1.769	-4.90	+6.20
일본	0.032	+2.00	+2.90	그리스	4.287	-3.90	-8.10
독일	0.279	+5.30	+11.40	이탈리아	2.876	-7.60	+18.60